

## 스웨덴 언론 논란

소위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휩쓸었던 중세의 암흑기엔, 유대 민족에 대한 괴상하고 악독한 거짓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아이들을 죽여 그 피를 유월절에 마짜 (무교병)를 만드는 데에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피의 모략 (Blood Libel)”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들 (마아리브 Ma'ariv 와 예디오투 Yediot)은 이 불합리한 주장을 널리 퍼뜨린 기사로 인해 불거진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긴장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2001년, 도날드 보스트롬 Donald Bostrom은 “인살타 (알라의 뜻대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여, 몸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이식 수술처에 팔아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감사의 말’에 이 책을 후원한 이들을 나열했는데, 거기엔 스웨덴의 외교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신체를 훔쳐 판다는 주장의 이 요상하고 극악한 기사가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알려진 “앞톤블라델 Aftonbladet”에 실렸습니다. 이러한 거짓말과 중상이 특별히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아무리 근거가 없어도 웬만큼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은 스웨덴 정부에 이 기사를 비난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리버만 Liberman은 그들을 통렬히 힐난했습니다. 어제 앞톤블라델 1면에는 이스라엘이 스웨덴의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스웨덴의 양대 일간지인 “스벤스카 닥 블라델 Svenska Dag Bladet”은 정부와 앞톤블라델의 반응을 이중적이라며 비난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그들은 2006년에 나왔던 반이슬람 만화를 예로 들며, 정부와 앞톤블라델 지가 무슬림들의 감정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현대판 “피의 모략”의 내용이나 유럽 언론과 외교관들의 이중적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계하는 서구 사회의 무능함인 것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nice).”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할 이들일 지 모릅니다. 아주 자유롭고, 편견 없으며 남을 잘 챙겨줍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지난 10년간 무슬림 이민자를 수십만 명이나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민자들은 지하드와 샤리아의 가치를 선동하는 공동체들을 세웠고, 국민들을 반이스라엘, 반유대 시위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처럼 말이죠. 서구는 이슬람의 극단적 반이스라엘 선전을 그대로 삼키며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이고 편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슬림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서구 사회가 이슬람 지하드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함으로써, 폭력적 반유대주의의 거대한 물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리고 전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최후의 전쟁을 위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허나 동시에, 각국에서는 참된 성도들의 그루터기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및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기독교의 윤리적 가치를 붙잡고 예수아께서 교회의 머리이자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들이 참된 메시아의 몸이요 마지막 때의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세계의 진실된 성도 공동체 (아랍 그리스도인 및 무슬림 출신 포함)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은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잇는 언약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살인, 자살, 퇴폐

위의 갈등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자체가 올해 국내 가정 폭력과 퇴폐적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난 3 주 동안만 해도, 13 건의 살인이 있었는데, 일부는 성적 일탈과 관련되었고 핵가족 내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었으며, 술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자국의 타락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두 토파즈 Dudu Topaz 는 현대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TV 인기 순위 1 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그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연예인들을 “없애 버릴” 환상에 매였습니다. 결국 두두는 연예계에서 잘 나가는 대여섯 명을 공격하도록 암흑가의 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의 굴욕을 견딜 수 없던 그는 어제 감옥에서 목을 뺏습니다.

명성과 영광에 대한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최악 속에 방황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식은 이 작고, 문제투성이인 나라에서 복음이 유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사회 최하층으로부터 최고층까지, 세속인이든 종교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아의 증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